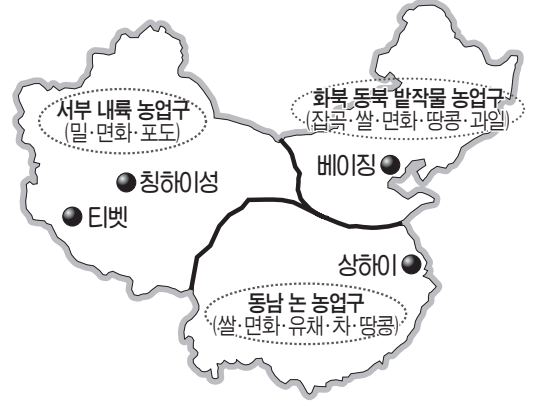


'진화하는 공룡' 중국농업 현장을 가다

❶ 기지개 켜는 중국 농업

■ 중국 농업지대 구분(주요생산품)



세계 식량 패권... '포스트 미국' 착착 준비

21세기 들어 중국경제가 비상하면서 중국 농업또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잡자는 중국을 깨우지 말라"는 위대한 정복자 나폴레옹의 우려대로 잠에서 깨어난 중국이 세계 경제를 끌어들이는 블랙홀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의 도입 이래 연평균 10%에 이르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20년에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농산품생산기지 표시〉 품질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중국 농촌 곳곳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해를 방문해 그 발전상을 보고 "상진벽해 했다"고 표현했듯이 중국의 농업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생산 및 유통구조가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긴 하지만, 중국 당국의 강력한 농업지원 정책과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결합돼 농업생산성이 개혁개방 전과 비교해 약 2.8배 증가하는 등 급격히 상업농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같은 중국농업의 빠른 발전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 특히 농도인 전남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중국 농산물 경쟁력이 높아지면 우리 농산물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기대하고 있는 동북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낮을 관세로 자 품질의 농산물이 무차별적으로 수입될 경우 전남이 받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개방前보다 생산성 2.8배 증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속담이 있다. 아직은 중국 농업생산성 및 품질이 우리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농업을 고려해 볼 때 중국 농업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응책 마련은 우리 농업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면모가 크게 바뀌고 있는 중국 농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반적 동향을 살펴보자.

중국 국토면적은 세계 제 3위로서 세계 총경작가능 토지의 7%, 농산물 생산액 제1위(곡물, 육류, 수산물 생산 각 1위)를 차지하는 등 중국은 세계 농산물 수급 측면에서 막대한 비중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지구 육지표면의 6.4%를 점유하고 있는 광대한 면적에 걸맞게 중국의 영농형태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근래 중국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들라면 주저없이 '농산물 공세'가 끊인다. 국내산보다 훨씬 싼 가격을 무기삼아 밀고 들어오는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 농업의 사활을 결정할만큼 큰 변수로 떠오르자 오래다. 올해부터는 중국산 쌀이 밥쌀용 쌀로 시판이 허용돼 가격이나 어려운 우리 쌀산업을 옥죄고 있다. 중국도 이미 친환경농업에 눈을 떠 농산물 품질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중국 농촌 곳곳에서

- 중국 농업정책 특징
- ① 개방형 농업 전환
- ② 가공 농산물 육성
- ③ 녹색식품의 확대
- ④ 농업산업화 경영



중국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 채소가 정갈해 보인다.

중국은 산지와 건조지역의 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작물재배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은 편만 아니라 작물생산의 잠재력이 있는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이고, 곡물산지시장으로부터 원거리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농업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지역성, 이른바 지역적 차별성과 분화(分化)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중국의 기후와 지형조건은 복잡한 농산물 생산지역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복잡

경제성장률 年 10%...2020년 미국 능가 韓-中 FTA 타결되면 농도 전남 치명타

한 지형조건은 주된 요인에는 토질, 강수량, 농작물의 생육가능기간 차이 등에서 비롯된다. 중국 농업지대는 농업생산특화 내지 농업종합생산능력에 바탕을 두어 ▲화북·동북의 밭작물 농업구 ▲동남의 논 농업구 ▲서부내륙 농업구 등 3개 지구로 구분한다. 화북·동북 밭작물 농업구는 소맥, 대맥, 쌀, 잡곡, 면화, 땅콩, 온대과일이 주 작목이며 동남 논 농업구는 농업생산수준이 가장 높은 곳으로 쌀, 면화, 유채, 땅콩, 차 등이 주요 재배작목이며 양자강 중하류, 서남농업구 등이 포함된다. 이 지역은 인구가 밀집해 있고 기후가 좋아 중국 전체농업인구의 60%, 경지면적의 40%, 쌀 생산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서부내륙농업구는 청장강원 북부, 신강지역과 감숙성, 영하성, 내몽고 서부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밀, 면화, 포도가 주요 생산작목으로 이 지역은 건조하고 일조량이 많아 작물생육에 매우 불리한 지역이다.

농산물 생산액 세계 1위

중국의 농업생산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79년 개별농가 경영체제를 도입하고 1983년 인민공사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되면서 농업의 상업농화가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체제재편전 및 생산량은 또한 세계 최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채소류는 세계재배면적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양념채소류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최근 농업현대화 추세에 따라 시설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농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생산체제를 조정하여 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도시 근교에는 첨단기술농업, 고부가가치농업, 수출농업을 발전시키고 연해지역은 농업현대화, 중부지역은 식량작물 및 가공산업, 서부지역은 생태농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농산물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의 친환경농산물에 해당하는 녹색식품 및 무공해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농촌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향진기업과 농촌의 2.3차산업을 집중 육성할 뿐만 아니라 전통농업을 현대농업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향전환에 따라 중국 대도시 근교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식당이 성업중이다. 도시민들은 소득증가와 함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이전보다 수배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친환경농산물로 만들어진 식단을 선호한다. 또 이같은 도시민들의 욕구를 의식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곳에서는 전원풍경을 활용한 관광농원을 만들어 소득을 올리고 있다.

중국 농업정책은 다음 몇가지 특징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개방형농업으로의 전환이다.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외국 신 품종의 도입, 신기술의 채용, 새로운 경영방식을 채택하여 시설농업, 과학농업, 환경농



친환경농산물로 식단을 꾸린 중국 대도시 근교의 관광농원 입구에서 종업원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중국 도시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관련 품목재배도 증가하고 있다.

업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녹색식품 재배 확대 경쟁력 높여

둘째, 가공농산물을 집중 육성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연간 농산물 수출이 150억불을 넘는 농업대국이지만 질적으로는 부가치 창출에 실패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 가공특화구역을 중심으로 농가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셋째, 품질고급화를 위해 녹색식품의 생

산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품질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국가품질관리국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녹색식품 위주의 고품질농산물을 수출하여 중국 농산물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넷째, 생산·구매·가공·수출을 일관화시키는 농업산업화 경영을 통해 위험의 분산과 농업 부가치를 농민과 기업이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글·사진=조창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

2007년 대학 수시입학자를 위한 중국어 초·중·고급 과정

중국어 초·중·고급 과정

"합격으로 관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 중국어 입문부터 HSK 대비까지 3개월 집중연습!"

합격률 95% 보장 + HSK 대비 100% 보장

기간	수강료	수업시간	수강인원
1년	1,200,000원	1,200시간	15명
2년	2,400,000원	2,400시간	15명
3년	3,600,000원	3,600시간	15명

중국어 대학원 리틀자이나 中国語学院

문의: 010-9707-233-9582

광주전남 이용기능장 1호

가발

시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이수재원장 직접시술관리

심는가발 탄생!!

대신님네 프리모가발맞춤

상대님네 프리모가발맞춤